

내강 상담실

◇ 이번호 해답자

나 건영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
이 기웅 이화의대 흥관내과 교수
주정빈 서울병원 정형외과 원장

대하가 노란빛으로
변했는데

(문) 23세의 처녀입니다. 지금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맨쓰는 정상이며 건강에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. 며칠 전부터 약간 기분이 나쁜 대하(帶下)가 훌려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니 약간 노란 빛이 있어 보입니다. 가렵거나 아프거나 한 증상은 없습니다. 부끄러운 말씀이나 약혼자와 몇번 성경험이 있었읍니다. 약혼한 남자는 매우 정결한 사람이어서 다른 곳에서 병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.

혹시 임질이 아닐까 겁이 나서 가정의학백과를 보니, 대하의 빛이 임질보다는 맑은 것 같습니다. 병이 없이도 대하의 빛이

변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
싶습니다.
<서울 성북동 박순옥>

현미경 검사로 정확 히 규명해야

(답) 귀하의 경우 우선 전문의사를 찾아 현미경검사를 하여 정확한 명명을 알아낸 후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어야 되겠습니다.

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하이 빛에 대하여는 임균이 아닌 다른균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주의하실 점은 약을 함부로 남용하시어 병이 만성화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어야 되겠습니다.

<서울의대 산부인과장
나건영>

4살 아이가 이유 없이 기침을 하는데

(문) 4살짜리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. 집의 아기가 3개월전부터 까닭없이 기침을 합니다. 열도 나지 않고, 아픈데도 없다는데, 밤에는 낮보다 더 심합니다. 밥을 잘 먹고, 잘 놀며, 얼굴색도 건강합니다. 기침소리는 마른 기침 같고 좀 마른 기침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.

이웃 단골 의사를 찾아가 진찰해 보니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러나 기침이 멎지 않아 며칠전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으나,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. 도대체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. 무슨 병일까요? 그리고 어떤 계통 전문의사를 찾아가 물어 보아야 할까요?

<서울 동대문 유성희>

기관지염 의심되나 다시 X레이 검진받 도록

(답)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기관지염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기관지염은 X-Ray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

수도 있습니다. 우선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 다시 X-Ray 사진 등을 찍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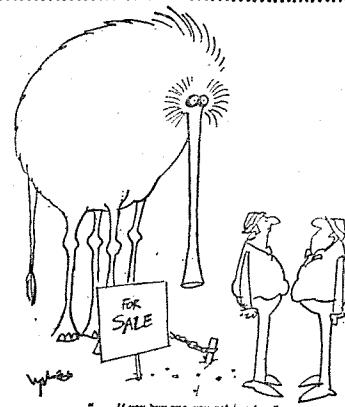
<이화의대 흉곽내과 교수 이기용>

어깨가 아픈데

(문) 39세의 남자입니다. 제작년 이사를 할 때 집을 옮기다가 어깨가 빠듯한 일이 있었습니다. 처음엔 물랐는데, 점점 어깨가 결리고, 고개를 뒤로 돌리기도 힘들게 되었으며, 무덜미가 뺏挈합니다. 들어 누울 때도 옆으로 누우면 결될 수 없이 아픕니다. 추운 겨울이 되면 덜 하나, 여름에는 더 심합니다.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신통한 효과가 없었습니다. 가족

● 질의 환영 ●

두사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. 기생충 질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문의 이외에도 일반질환에 대한 문의도 환영합니다. 의료계 권위자와 상담하여 저도해 드리겠습니다.



"... If you buy one, you get one free."
합니다! 만약 당신이 이 동물을 사신다면 한생령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

들이 한방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해서 한약도 대려 먹어 보았고, 침도 두달이나 맞으려 다녔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. 한증 막에도 다녀보고, 집에서 뜨거운 물수건으로 짐질도 해보고, 장님을 불려 암마도 해 보았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. 이제는 지쳐서 어디 가보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으며, 돈도 없어 절망 상태입니다.

나같은 사람이 구제 될 방법이 있을까요?

<서울 마포 박준식>

힘줄에 염증이 생긴 듯 맨손체조·찜질 계속토록

(답) 귀하께서는 짐 숨길 당시 힘줄을

다쳐서 결과적으로 염증이 생기지 않았나 봅니다.

그러므로 과격한 운동이나 힘드는 일은 될 수록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
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은 좋지 않고

① 맨발로 움직여보는 맨손체조나

② 더운찜질을 하는 것이 좋겠고

③ 전문의 (정형외과)한테 찾아가 X-Ray 사진 등을 찍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

심하게 아플 경우에는 약방에서 아스파린을 구입하시어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.

<서울 병원 정형외과 주정빈>